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8~4/14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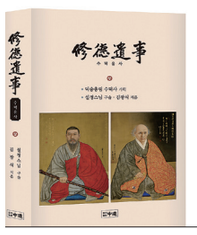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에 관한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물음49	장웅연	담앤북스
2	큰 활자본 지장경	김현준	효림
3	법구경-담마빠다(쿳다까니까야)빠알리대장경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4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6	정토삼부경(무량수경,관무량수경,아미타경)	석청화/문선우	불교서원
7	불교영어-초급1(개정판)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8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9	마음글밭	원영	불광출판사
10	화엄경(불교경전1)	김지견 역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엮음	불광
2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불교사의 이해	이만 외	조계종출판사
4	초기불교 입문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5	법구경	식카와띠 위뿔라나니	담마디빠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7	동종요법 미네랄 가이드북	유이 토라코	햇무리
8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9	법구경 이야기(1)	무념,응진 역	옛길
10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벤자민 데커	운주사

수덕사의 역사를 기록하다



수덕유사
덕숭총림 수덕사 기획
설정 스님 구술
김광식 지음
도서출판 중도
3만원

2년간 설정 스님 구술 채록
덕숭총림 가풍·선지식 일화
10·27법난-94년 종단개혁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70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식이 머물며 수행과 교화를 이어온 도량 덕숭총림 수덕사의 역사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덕숭문중을 이끌었던 경허·만공 스님뿐 아니라 혜암·벽초·원담 스님, 정혜사에서 수행한 금봉·춘성·전강·금오·동산 스님, 견성암에서 수행한 비구니 스님에 관한 전승 이야기가 담겨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덕숭총림 방장, 수덕사 주지를 역임한 설정 스님이 지난 2년간 수덕사와 관련된 정사, 비사, 증언, 가풍, 정체성 등을 구술한 내용을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가 정리했다.

기존에 출간된 〈경허집〉, 〈만공법어〉 등에 담지 못한 생생한 수행 현장과 비사, 수행자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원력까지 담아내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덕숭산의 큰스님'에서는 경허 스님을 중심으로 근대 선불교의 부흥 과정을 조명한다. 선풍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시대에 혜성처럼 등장해 법등을 다시 밝힌 경허 스님의 행적과 그 법맥을 이어받은 만공 스님의 치열한 수행·교화 과정이 상세히 그려진다. 이어 혜암, 벽초, 원담 스님에 이르기까지 덕숭선맥을 계승한 스님들의 수행 이력과 가풍이 한 흐름으로 정리되어 있다.

2부 '덕숭산과 인연을 맺은 스님'에서는 수덕사와 정혜사, 견성암에서 정진한 스님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금봉·춘성·동산·경봉 스님과 그간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던 중은 스님, 법희·일엽·선복·선경·수연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의 삶도 함께 조명했다.

3부 '수덕사의 현대사'에서는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에서 법맥을 지켜낸 이야기, 선학원의 역사, 10·27법난과 94년 종단개혁 등 현대 불교사의 중요한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특히 설정 스님이 겪은 10·27법난의 생생한 증언도 담겼다. 1980년 5월 수덕사 주지에 취임한 스님은 그 해 10월 27일 새벽 대전 보안사로 끌려가 11일간 고초를 겪었다. 설정 스님은 "정신적 고문을 받은 것이 배를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치욕이었다"고 회고하며 "법난은 전 불교도를 향한 탄압이고, 정신적인 살인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94년 종단개혁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경과, 종회의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 등을 술회하고, 2017년 총무원장 선거 과정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설정 스님은 "94년 종단개혁은 실패한 것이기에, 성찰하는 차원에서 종단을 바르게 되돌려 놓으려고 총무원장에 출마했다"며 "종단개혁을 하려고 나갔다가, 도리어 내가 은처자라는 중상모략을 받고 말도 안 되는 것에 몰려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덕사의 역사, 가풍, 정신을 찾아내 정리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종단 전체의 문제도 고민하려 한다"는 말로 회고를 마무리했다.

설정 스님은 간행사에서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삶과 업적도 세월 속에 묻히고 만다"며 "수덕사 스님들이 출가해 입적하기까지 수행과 정진, 불사, 중생 교화 등 수많은 업적과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학들에게 지침과 귀감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수덕유사〉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여섯 글자에 담긴 삶의 귀의



나무아미타불
야나기 무네요시 지음
김호성 옮김
조계종출판사
2만2000원

'무심의 염불' 본질 조명
김호성 교수 주해 보강

일본 민예학자 야나기 무네요시가 만년에 남긴 사상적 결실이자, 여섯 자 명호의 의미를 풀어낸 〈나무아미타불〉의 개정증보판이 출간됐다. 1955년 일본에서 처음 간행된 이 책은 특정 종파의 교리를 넘어, 염불이라는 행위가 지닌 존재론적 울림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고자 한 저작이다.

책의 핵심은 '나무아미타불' 여섯 글자에 담긴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나무(南無)'는 귀의, 즉 온전히 맡기고 의지한다는 의미이고 '아미타불(阿彌陀佛)'은 무량한 생명과 빛을 상징하는 부처를 가리킨다. 결국 '나무아미타불'은 "무량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서원이자,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탁을 드러내는 언어다. 저자는 이 문장에 인간 삶 전체가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생활의 미'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했듯, 염불 또한 어떤 목적이나 공덕을 계산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심(無心)'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의도와 욕망이 개입된 염불은 이미 순수성을 잃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부르는 '나무아미타불'에는 탐진치가 스며들 여지가 없다. 저자는 염불이 이미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타력에 자신을 맡기는 존재론적 결단이라는 사실을 거듭 일깨운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김호성 동국대 명예교수의 오랜 연구와 번역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치밀한 주해와 교감이 더해졌다.

2017년 초판 번역본을 펴낸 김호성 교수는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기존 번역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본 고어 표현까지 원전과 대조해 세밀하게 다듬었다.

대폭 보강된 역주도 책의 이해를 돕는다. 김 교수는 "일본불교 특유의 사상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은 한국 독자에게 낯설 수밖에 없기에, 불교 용어에 대한 해설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보경 스님 '고양이 3부작' 유럽 간다





고양이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 보경 스님. 사진 제공=불광출판사

불광출판사 3종, 9개 언어권에
선인세 5억원…K-불교 새 지평
고양이로 풀어낸 선적 사유 '주목'

보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이사장)의 '고양이 에세이 3부작'이 유럽 주요 출판시장에 진출하며 한국불교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불광출판사(대표이사 류지호)는 최근 보경 스님의 대표작인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고양이를 읽는 시간〉,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 등 3부작 시리즈의 판권을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9개 언어권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선인세 5억원 규모로, 종교·에세이 장르 단일 시리즈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다. 특히 영국 프로파일 북스(Profile Books), 독일 드로머 크나우르(Droemer Knaur) 등 각국의 대표 출판사들과 동시에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불광출판사는 이 같은 성과를 '기획력'과 '저자 브랜드화'의 결과로 분석했다. 책의 타깃 독자를 불교 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에세이 독자로 확장해 기획·편집하고, 수행과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일상의 언어와 감성으로 풀어내 문턱을 낮춘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또 '고양이'를 주제로 시리즈화함으로써 책과 저자의 브랜드를 성장시킨 점도 흥행을 견인한 요소다.

'고양이 에세이 3부작'은 보경 스님이 산중 암자에서 우연히 만난 고양이와의 인연을 통해 인간의 삶과 마음을 성찰한 철학적 산문이다. '최선을 다해 대충 살아가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길어 올린 통찰은 현대인들의 과도한 경쟁과 관계 속 불안을 돌아보게 한다. 왜 우리는 지나치게 애쓰는지, 왜 관계에서 조바심을 내는지, 왜 행복을 밖에서 찾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스님의 글은 종교와 문화를 넘어 보편적 공감을 끌어냈다.

이러한 콘텐츠의 힘은 2020년과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도서 선정, 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여름 첫 책' 선정 등으로 입증된 바 있다.

보경 스님은 "고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로 불교의 가르침을 보여주고자 한 점이 기존 에세이들과 차별화된 요소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사유가 확장되는 연작 형식으로 완성한 점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의 선적 언어와 직관적 표현은 사람을 각성시키는 힘이 있고 문학적으로도 매우 강렬한데, 그 가치를 충분히 전하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쉬웠다"며 "책에서는 고양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존재를 통해 그 정신을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싶었다"고 집필 배경을 설명했다.

스님은 "고양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지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변화했다"며 "그 이후의 사유를 담은 속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해 쉽게 전달하는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령 기자



"이기심을 버리라는 말은 틀렸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다

욕망을 없애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오스 숲속 사찰에서 수행 중인 쿠바 탐디 스님은
자신을 "이기심을 안고 사는 수행자"라고 고백한다.
이 책은 욕망을 억누르라는 대신,
통찰하라고 말하는 인문 수행서다.

나는 이기적 스님이다
쿠바 탐디 | 400쪽 | 23,000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25년간 청년들을 만나며 그들의 오늘의 삶을 고민해 왔다. 자유를 찾아 욕망이 지배하는 도시를 떠나 라오스 푸딘댕청소년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냈고 출가한 수행자이지만 여전히 갈애와 집착, 어리석음을 안고 사는 한 인간이다. 홀로 서는 자유를 꿈꾸며 출가했으나 인간은 끝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배웠다. 삶의 진실은 세상에서 벗어난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현실의 한복판에 있었다. 완성된 스님이 아니라, 길 위에 선 초보 수행자로서 수행의 길을 걷는 중이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